

在网上

误用频率最高的韩国语

◎ [韩国] 李姬子
李宰诚 著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한국어

民族出版社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한국어© 2006 by Lee Heeja & Lee Jaeseong
Translation rights arranged by Communication Books
through Shinwon Agency Co. in Korea
Simplified Chinese edition © 200X by The Ethnic Publishing House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在网上误用频率最高的韩国语 / (韩)李姬子, (韩)李宰诚
著. —北京:民族出版社, 2007.8

ISBN 978-7-105-08243-8

I.在… II.①李… ②李… III.朝鲜语-词汇-自学参考资料 IV.H5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25728号

北京市版权局著作权合同登记章 图字:01-2007-2900号
本书由韩国Communication Books授权民族出版社独家
出版发行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民族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7年9月第1版 2007年9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7.5 字数: 190千字

印数: 0 001-5 000册 定价: 28.00元

ISBN 978-7-105-08243-8/H·601(朝48)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传真: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在网上

误用频率最高的韩国语

● [韩国] 李姬子
李宰诚 著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한국어

民族出版社

此为试读, 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序言

很多人都说韩国语的规范和隔写法比较难，没有一定的规则可循，让人摸不着头脑。学习韩国语的人都普遍在意规范和隔写法，从而将写文章当做一件烦人的事情。同时，从小开始我们就听大人们讲韩文是一种很科学的文字，所谓的科学性是指韩文所特有的合理性和逻辑性。

这似乎是一个悖论，十分合理且富有逻辑性的韩文居然没有规则可循？是不是可以这样认为：之所以初学韩国语的人觉得它无规则可循，原因在于他们还没有真正理解韩文的合理性和逻辑性。

只要理解了几条原则，我们就可以随心所欲地使用韩文。韩文是表音文字，因此根据发音书写文字；同理，在阅读时还原文字的发音即可。

在编写本书时，作者着重分析了在使用韩国语规范时易混淆的单词与发音，并进行了通俗易懂、言简意赅的说明。

如“어짜피”和“어차피”、“찾는다”和“찾는다”是我们很熟悉的单词，并确信绝对不会混淆。但要下笔写出来的时候，却又要犹豫半天，如果有人问起它们的异同也不知道该如何作答。再如，“똥

재하다”与“피죄죄하다”是经常听到的单词，但却不知道该怎么拼写。与标准语相关的“상치”和“상추”、“괴팍”和“괴팍”也让人一时难以做出判断。因错误的发音而不知正确写法的“결제”和“결제”、“계발”和“개발”等也在本书中进行了通俗易懂的说明。

本书可以随意翻开，从任何章节开始阅读，都可以轻松地读下去。希望读者通过对本书的阅读，掌握书写韩文的原理，并可以把这些正确的知识传输给别人。相信阅读本书后，我们可以轻松地理解韩文的语法原理。

本书中收录了众多网民经常混淆并求教过的单词。此外，还有很多有关隔写法的疑问，但因篇幅问题就不在这里一一赘述了，留到下一本专著中解决。

最后，向策划和出版本书的Communication Books编辑老师们致以最衷心的感谢。

2006年春

李姬子 李宰诚

책머리에

모두들 우리말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한다. 일정한 규칙이 없어 도통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신경 쓰느라고 글쓰기를 짜증나는 일로 생각한다. 한편, 우리는 우리 한글이 과학적인 글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어 왔다.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상당한 모순이 생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우리글에 일정한 규칙이 없어 어렵다고? 이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글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거나,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리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이다. 물론 정답은 후자이다.

우리말은 몇 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쓸 수 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다. 우리말은 소리글자를 쓰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그렇게 쓴 글자를 읽었을 때 원래의 소리가 나오게 하면 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면, 관련이 있는 말끼리는 글자 모양을 고정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맞춤법이나 단어를 쓸 때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진가 저

건가 하여 고개를 가우뚱해 보았음직한 것들을 골라, 앞으로는 헛갈리지 않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하나하나 읽어 가다보면 우리말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짜피’와 ‘어차피’, ‘찾는다’와 ‘찾는다’와 같이 어찌 보면 이런 걸 누가 몰라 하다가도 막상 글을 쓸 때에는 혼동되고 누가 왜 그런지 물어 봤을 때 설명하려 들면 딱히 이렇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들, ‘폐재재하다, 피죄죄하다’와 같이 말로만 들어 와서 글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것들, ‘상치’인지 ‘상추’인지, ‘괴팍’인지 ‘괴팍’인지 표준어와 관련된 것들, 또 ‘결제’와 ‘결재’, ‘계발’과 ‘개발’과 같이 잘못된 발음에 의해 쓰임이 헛갈리는 것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하였다.

이 책은 아무 데나 펼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편씩 읽으면 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말의 쓰임에 대해 원리를 알아 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해 주는 데에 밑천이 되는 그런 지식으로 남았으면 한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은 네티즌들이 많이 헛갈려 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것들이다. 이밖에 띄어쓰기에 관해 도움을 요청한 글도 많았는데 이는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끝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펴내는 데에 힘써 주신 커뮤니케이션북스의 멋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6년 봄날, 이희자 · 이재성 씀

차례



가늘다/얇다	10	너가/네가	57
갈게요/갈께요	12	네/예	61
건네다/건내다	15	눈곱/눈꼽	63
건데/건대	18	데모/대모	64
결재/결제	20	돌/똥	65
개발/개발	22	되/돼	68
고요/구요	24	-든지/-던지	70
괜/괜	27	떡볶이/떡복기	72
괴팍/괴팍	29	띄워쓰기/띄어쓰기	75
굳이/구지	32	로서/로써	76
귀거리/귀걸이	36	마찰가지/마찬가지	78
귀저기/기저귀	38	만들/만들	79
글썸/글새	41	맞겨 주세요/말겨 주세요	82
깨끗이/깨끗히	43	맞추다/맞히다	84
깨뜨리다/깨트리다	46	맞춤/미춤	87
꽤/꽤	48	맨날/만날	89
꽤죄죄하다/꽤재재하다	51	머칠/몇일	90
ㄱ/ㄱ	53	무늬/무니	93
낮다/낮다/날다	54	바꼈다/바뀌었다	95

받침/받힘/받침	96	써 놔/써 놓아	135
베개/베게	98	씻/씻, 쉬/쉬	136
볶요/볶요	100	씨발/씨팔	138
부딪다/부딪치다/부딪히다	103	쓰레받이/쓰레받기	139
부조/부주	106	쓰여지다/쓰이다	141
부치다/붙이다	108	않/안/앉	143
빨간 줄/빨강 줄	110	애/애	146
뽀뽀하다/뽀뽀하다	112	얘기/얘기	148
산림/삼림/살림	115	어떡해/어떻해	149
살/삭, 삼/삭	117	어렵다/어려움다	151
상치/상추	119	어름/얼음	152
새초롬하다/새치름하다	120	어의없다/어이없다	154
쌌나다/쌌나다	121	어짜피/어차피	155
설겅이/설거지	123	어쨌든/어쨌든	157
설렘/설레임	126	어쩔 때/어떨 때/어떤 때	158
쇄뇌/쇠뇌/새뇌/세뇌	128	얼룩이/얼루기	159
습/습/샤	129	었다/였다	160
-습/-음	131	에/의/에게	162
-습니다/-읍니다	133	에요/예요	165



여덟/여덟	168
역활/역할	170
옛/옛	171
오랜만/오랫만	173
오뎅이/오뎅이	175
웬지/웬지	177
외골수/외골수	179
육개장/육개장	181
으레/으레	183
일절/일체	185
있/있	187
있다가/이따가	189
자장면/짜장면	191
잠귀/잠가	193
장마철/장맛철	197
장이/쟁이	200
저녁/저녁	202
적절지/적절치	203
젓/젓	206



주글래/죽을래	208
주십시오/주십시오	210
찌개/찌개	212
찾는다/찾는다	214
천정/천장	216
케익/케익	218
폐쇄/폐쇄	221
폭발/폭발	223
함다/함다/함다	225
해 쥐/해 조	227
해매다/해매이다	229
헛갈려/헛갈려	230
허를 데었다/허가 데었다	231
후덥지근하다/후텁지근하다	233
휴유증/휴유증	235
휘둥그레/휘둥그레	236



가미 허리는 가늘까요, 얇을까요?

‘가늘다’는 길이나 둘레와 관련이 있고,
‘얇다’는 두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릴 때는 각각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 손가락이 가늘고 예쁜 여자와 손가락이 굵고 투박한 남자
- 얇은 책과 두꺼운 책

‘가늘다’의 반대말은 ‘굵다’이고, ‘얇다’의 반대말은 ‘두껍다’입니다.

‘가늘다’는 물체의 둘레가 작으면서 아주 긴 것을 뜻합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봐요.

- 저는 다리가 너무 가늘어서(얇아서 ×) 고민이에요.
- 머리카락이 가늘고(얇고 ×) 힘이 없다.



‘얇다’는 물체의 두께가 일정한 정도보다 작은 것을 뜻합니다.

- 옷을 얇게(가늘게 ×) 입었더니 춥다.
- 은행알 속껍질이 종이보다 더 얇았습니다.
(가늘었습니다 ×)



'예쁜걸' 을 '예쁜겜' 로 발음 하나요?

- 엄마! 10시쯤 집에 갈게요.

이 글에서 무엇이 틀렸나요?

예, 맞아요. '갈께요'가 틀렸습니다. '집에 갈게요'가 맞습니다.

그런데 발음은 [갈께요]라고 하면서 왜 '갈게요'라고 써야 하는지 이상하다고요? 약속일 뿐입니다. 아래의 것들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모두 '- 르' 뒤에 쓰인 것들로서 된소리로 발음이 될지라도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 아까 그 빵 다 먹을걸.[먹을겜]
- 그 여자, 예쁜걸?[예쁜겜]
- 그럴수록[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 아플지라도[아플찌라도] 학교에는 가야 한다.
- 질세라[질세라] 열심히 뛰었다.
- 비가 올지[올찌] 안 올지[올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질문할 때 쓰는 말인 ‘까’, ‘꼬’, ‘쏘냐’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 어디로 갈까?
- 이 일을 어이 할꼬?
- 안녕하십니까?
- 어찌 하오리까?
- 내가 너에게 질쏘냐?

‘예쁠걸’은 ‘예쁜걸’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예쁜걸’은 절대로 [예쁜꺄]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쁠걸’도 발음이 된소리로 나더라도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의 표기를 통일시키는 뜻에서 ‘걸’로 적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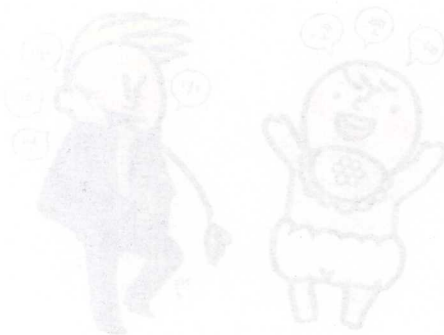
또한 ‘올지 안 올지’는 ‘오는지 안 오는지’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오는지’는 절대로 [오느찌]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지’도 발음이 된소리로 나더라도 서로 짝을 이루는 것들의 표기를 통일시키는 뜻에서 ‘지’로 적는답니다.



반면에 질문을 나타내는 말들은 ‘- 습니까’, ‘- 리까’와 같이 ‘- 르’ 뒤가 아니더라도 늘 ‘까’처럼 된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표기를 통일시키는 뜻에서 된소리로 적습니다.

여기서 잠깐!

된소리란 ㄱ ㄷ ㅂ ㅅ ㅈ을 ㄱ ㄷ ㅂ ㅅ ㅈ와 같이 목의 뒷부분에 힘을 주고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럼 앞의 ㄱ ㄷ ㅂ ㅅ ㅈ는 무슨 소리라고 할까요?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들과 짝을 이루는 ㅋ ㅌ ㅍ ㅊ는 거센소리라고 하지요.



건네다/건내다

물건은 건네세요

건내면 안돼요 --^

‘건네다’가 맞습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건네다]! 입을 그리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쉽게 발음할 수 있죠? 말은 이처럼 조화롭게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건내다’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를 올바르게 발음하려면 입을 ‘아’를 발음할 때만큼 크게 벌려야 하는데, 이미 ‘건’을 발음해 놓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내’를 발음해 보세요. ‘네’보다는 사뭇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는 아예 ‘니’라고 하여 입을 아주 조금만 벌리고 발음하지요.

이 문제는 모음 ㅐ와 ㅑ를 바르게 소리 내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ㅐ와 ㅑ는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개’(멍멍이)와